

밥 우드워드가 되기까지



 **세계일보**

장민주 기자



수습기때 매일 새벽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나와 카메라로 도착한 파출소 사진을 찍었다. 가끔 그때 찍어둔 사진들을 보며 열정을 다진다.

오만

“나는 밥 우드워드다.” 마와리 첫날, 현관에서 거울을 보며 읊조린 말이다. 무려 8살 때부터 꿈꾸던 일이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 회사 매뉴얼은 형광펜과 빨간 밑줄로 가득했다. 그러고도 걱정이 돼 회사 이름이 새겨진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매뉴얼 내용을 정리했다.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게 관할 출입처 목록을 엑셀 파일에 분류했다. 전날 밤엔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 다른 라인 경찰서 보도자료까지 찾아봤다. 걱정이 가시질 않았다. 자신감을 얻고 싶었다. 평소 좋아하던 밥

우드워드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오늘 하루만 밥 우드워드가 돼서 취재한다고 생각하자.

오만이었다. 첫 보고를 5분 남긴 시간. 파출소 경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잠깐 앉아서 노트북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다. 경찰은 ‘너 같은 애들 여러 번 본다’는 표정으로 그러라고 했다. 수첩에 휘갈기듯 쓴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노트북에 옮겨쓰고 있었다. 들어올 땐 없었던 경찰이 손을 털며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자가 와서 일을 해? 나가!” 취재

수첩을 챙길 겨를도 없이 쫓겨나는 건 괜 찼었다. 화를 쏟아내는 사람에게 괜히 웃 으며 다시 뵈겠다고 인사하는 것도 상관 없었다. 문제는 보고까지 남은 시간이 2 분이라는 것.

룽패딩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벤치로 달려가 노트북을 올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1월 초겨울 의 바닥은 냉골이다. 하지만 그때는 내 피 가 더 차가웠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요 즘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서도 공부하냐” 며 허허 웃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장난 쳤겠지만 간신히 네, 라는 대답만 쥐어짜 내고는 보고에 집중했다. 이럴 땐 꼭 노 트북이 멈춘다. 손이 달달 떨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빌었다. 제발 시간만 지 키게 해주세요. 신은 없었다. 결국 2분이 지나서야 일진 선배와의 카톡창에 내 보 고가 올라갔다. ‘데드라인’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기한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던 교수님 얼굴 이 떠올랐다. 결국 첫 보고는 엉망진창으 로 끝났다. 밥 우드워드든 무슨. 죽도 밥 도 안 됐다.

오기

첫날부터 너무 큰 사람을 담으려 했던 별일까. 수습기자의 밤도 순탄치 않았다.

네 번째다. 저 경위 분명 나랑 눈이 마



입사 첫 달에 윤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짜릿함과 감동을 느꼈다. 신문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큰 기계가, 이렇게 많은 사람 이 필요한 사실을 체감했다.

주쳤다. 갑자기 옆 동료에게 말을 건다. 아까는 안경을 벗었고, 몸을 뒤로 돌렸고, 또 화장실로 들어갔다. 우리 사이엔 파출 소 유리문이 잠겨있다. 그는 나를 필사적 으로 못 본 척하고 있다. 오기가 생겼다. 저 경위의 이름은 꼭 듣고 가리라. 영하 4 도의 밤. 일부러 입김을 더 크게 내뿜었 다. 주차장이 비어 있는 걸 보니 출동 나 간 경찰관이 돌아올 거다. 10분여가 지난

알립니다

세계일보 28기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김수정, 변세현, 소진영, 임성균, 장민주,
정세진, 최경림
(이상 7명, 가나다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보고 엄마와 부둥켜안았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연말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후에야 경찰차가 들어왔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찰관에게 교대 시간과 경위 이름을 물었다. 슬쩍 몸을 뒤로 빼던 경찰관은 추위에 벌개진 얼굴을 보고 피식 웃으며 이름을 알려줬다. 그제야 등을 돌리고 다음 파출소로 향했다. 그 밤이 일상이 될 줄 그땐 몰랐다.

대부분 밤 우드워드의 집념을 그의 장점으로 꼽는다. 어떤 방해에도 진실을 알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념. 물론 중요한 역량이다. 하지만 우드워드의 ‘비기(祕器)’는 따로 있다.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친화력이다. 그의 자서전 ‘시크릿맨’을 보면, 우드워드는 기자가 되기 전부터 ‘딤소르트’인 마크 펠트를 알고 있었다. 당시 군인이었던 우드워드는 백악관에서 펠트를 처음 만났다. 미국 국가정보국(FBI)에서 일하던 펠트는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말을 터놓지 않았다. 하지만 우드워드는 지치지 않고 질문을 던진 끝에 그가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녔단 사실을 알아냈다. 공통점을 시작으로 우드워드는 대화를 이어가며 펠트의 호감을 샀다. 이 호감은 2년 뒤, 미국을 뒤흔든 ‘워터게이



수습기자 때 좋은 기회로 현장칼럼을 썼다. 신문에 내 이름과 열굴이 들어간 게 기자가 됐음을 인증받는 것 같아 당시에 몇번이고 펼쳐봤다.

트’ 보도를 끌어낸다.

파출소에서 내쫓길 때마다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분명 펠트도 처음엔 우드워드를 귀찮아했다. 이것저것 물어보며 자신의 진로를 정해달라던 우드워드가 분명 성가셨을 거다. 하지만 우드워드가 운이 좋아서 펠트와 친해졌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우드워드는 자신을 외면하는 펠트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주눅이 들긴커녕, 마음을 열 열쇠구멍을 찾을 때까지 노력한 거다.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 마와리가 힘들지언정 무섭지는 않았다.

도모 경감을 매번 찾은 것도 괜한 오기였다. 비기는 없더라도 오기는 있었다. 도 경감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기자가 싫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정말 싫으면 무시하고 말지, 굳이 얼굴을 마주

보고 싫다고 하는 텐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몇번 말을 주고받자 그는 입을 열었다. 순경 시절 기자가 파출소로 와서 일하는 책상에 몇대로 걸터앉아 서류를 뒤적이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 기억을 깨주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자신감과 달리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몸을 녹이고 가라며 커피는 건네줘도 시간은 내어주지 않았다. 매번 대답 없는 그의 옆에서 혼자 얘기를 이어가다 나오는 게 다였다. 한번 대화가 이어진 적이 있다. 우연히 대학교 얘기가 나왔을 때였다. 자신의 조카도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으며 흥미를 가졌다. 쉽게 얻은 흥미는 쉽게 꺼졌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조카 보다는 도 경감과 같은 학교에 나오지 못한 점이 썩 아쉬워 입맛을 다셨다.

담당 라인이 바뀌는 날. 그동안 감사했다는 쪽지와 피로해소제를 준비했다. 날 보고 화장실로 도망가려던 도 경감을 붙잡았다. 선물이라고 내미니 그는 단번에 거절했다. 쪽지만 다시 건넸다. 그는 그날 처음 웃었다. 쪽지를 펼쳐 읽은 그는 자리로 돌아가 쌓인 수습기자의 명함을 뒤적였다. “세계일보 장민주쥬? 앞으로 기사 챙겨볼게요.” 그게 다였다. 고작 이 작은 기억으로 그의 마음을 돌렸는지는 모른다. 설령 내가 그의 마음구멍을 열지 못했더라도 하나는 깨달았다. 오기도

세계일보

동대문구 창고 건물서 불, 32명 대피...소방 진압 중

입력 2025-01-13 13:17:48, 수정 2025-01-13 13:26:36

서울 동대문구 6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동대문소방서는 13일 0시25분쯤 동대문구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0시29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8시간 만인 오전 8시25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인근 주민 32명이 대피했다.



첫 현장에서 접근금지 줄을 넘나들고, 사람들에게 질문하며 기자가 됐음을 실감했다. 뿌듯함보다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 하루였다. '장민주 기자'라는 이름이 처음 온라인에 올라간 기사다.

잘 다듬으면 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오기가 준 짜릿함을 느낀 이상 난 평생 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 많이 넘어져야 나중에 달릴 수 있단 걸 압니다.” 호기롭게 회사 자기소개에 쓴 문장이다. 넘어질 각오, 돼 있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된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해도 넘어질 땐 생각보다 아프다. 당연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현장 취재.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인가. 관할 지역에 화재가 났다. 자정에 출동한 소방관이 아침 8시까지도 진화 중이라고 했다. 휴대폰만 쥐고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가장 정확한 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는 거다. 현장으로 달려갔다. 접근금지 줄을 넘어간다. 소방관에게 진화 상황을 물어보니 자세하게 설명한다. 구청 관계자도 이재민 지원 계획을 알려준다. 화재 건물 가까이 가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인근 주민은 내게 걱정을 토로한다. 이 모든 일이 기자라서 가능했다. 벅찬 마음에 몇 번이고 침을 삼켰다. 이들이 입을 여는 건 내가 진실을 알릴 거란 신뢰 때문일 거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다.

보고 후 선배 지시가 떨어졌다. 불이 나던 상황을 목격한 시민을 찾아야 한다. 선배가 준 20분 중 오전보고를 옮겨 쓰는데 10분을 써버렸다. 남은 시간은 10분. 그 안에 목격자를 찾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마음이 조급한 탓일까. 발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 채 횡단보도 위 빙판을

밟고 그대로 넘어졌다.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 두 명과 소방관 너댓 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더 낮부끄럽다. 차라리 안 타까워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나 뛰어가면서 다음엔 더 화끈하게 넘어져 경찰들과 친해질 빌미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영덩이에 멍이 들더라도 몸으로 넘어지는 게 낫다. 마음으로 넘어지는 건 훨씬 더 아프다. 점심을 먹고 경찰서 형사과에 들어가 이틀 뒤 합동감식을 시작할 거란 얘길 들었다. 불길을 잡느라 건물 6층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했다. 형사팀장은 물을 빼는데만 이들이 걸릴 거라며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 겁니다”라고 속삭였다. 보고할 생각에 신이 나 뛰쳐나왔다. 다른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아뿔싸. 팀장 이름을 안 물어봤다. 기껏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얘기해줬는지도 모른다. 기본도 못 지켰다. 폼나게 넘어질 방법도 많을 텐데.

지난 주 탈수습식을 했다. 이제야 ‘수습기자’에서 ‘기자’가 됐다. ‘수습’ 두 글자를 떼기 전까지 셀 수 없이 넘어졌다. 앞으로도 넘어질 일은 많을 거다. 수습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서 더 아플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제의 오만을 딛고 오기를 단련해 기자가 된 이상 계속 걸어가고 싶다. 오늘 넘어지면 내일은 달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 꿈꾸던 밥 우드워드 같은 기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 🍷

세계일보 장민주 기자